

#1	<h1>ESG 성공 열쇠, 디지털 기반 ESG</h1> 
	<p>글. 서정열 에스코어(주) 디지털전략컨설팅팀 상무</p>

### ESG, 필요성은 공감, 현실은 혼란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 모습이지만, 불과 2~3년 전만해도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생각되던 단어였다. 그러나 '21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출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ESG 인식 수준 조사에서 64% 이상이 ESG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더 이상 “ESG가 뭐지?” 또는 “ESG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을 정도로 ESG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오히려 질문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ESG를 효과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대기업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앞 다퉈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내에 ESG 전담팀을 만들거나, ESG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ESG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ESG 추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ESG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 부족, 명확한 ESG 개념 이해 부족, 제 각각인 평가 방식,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이다. 특히 평가 기관마다 제 각각인 평가 방식은 ESG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ESG 평가기관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동일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가 평가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ESG 성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



그림 1. ESG 데이터 개념도



〈에스코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ESG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부, 투자기관, 주주, ESG 평가기관, 환경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ESG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응하고 있고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시점에는 자체 역량 부족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22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의 에너지 총 사용량 및 에너지원별 사용량, 환경법규위반 현황 등 환경정보공시를 의무화하였고, '25년부터는 환경정보 외에 ESG 전체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최근 국내 언론사에서 상장사 250여 곳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88.6% 이상이 ESG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을 한 상황을 볼 때, 정부의 일방적인 공시 의무화 추진만이 ESG 정착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SG 데이터 이해 및 디지털화 필요**

이러한 과도기적 현실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

으로 ESG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데이터 공개 요청에도 빠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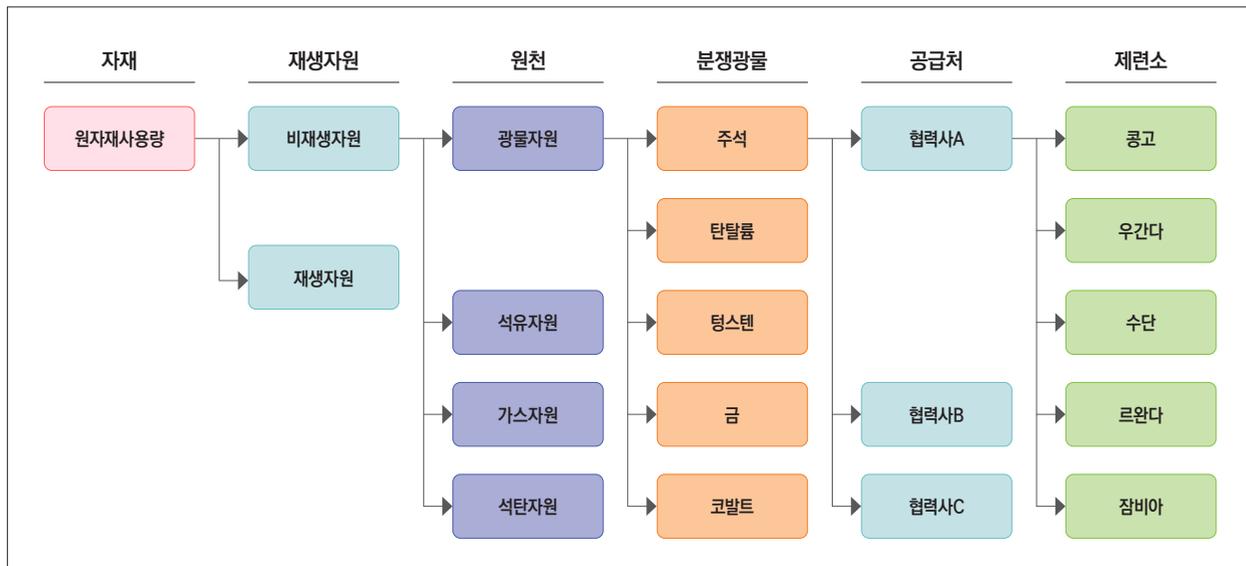
기업에서 가장 먼저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ESG 데이터이다. ESG 데이터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GRI, SASB와 같은 글로벌 ESG 정보공개 기준으로 통합 및 재가공한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ESG 데이터는 기업들이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구매, 마케팅, 영업, 생산, 물류 등 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ESG 관점으로 재해석한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글로벌 ESG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가 필요한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해 동안 기업의 다양한 ESG 활동들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공개하는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다. 그만큼 중요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보고서 작성 담당자라면 매년 보고서 작성 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ESG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심지어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할지라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업 담당자가 찾아서 컨설팅 업체에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ESG데이터만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글로벌 ESG 공개 기준에 맞춰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공개 요청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ESG데이터를 준비함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결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ESG 데이터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ESG 공개기준에 콩고, 우간다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을 규제하고자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량을 공개하는 기준이 있다. 이는 분쟁지역 원자재를 구매해 줄 경우 해당 국가가 원자재 판매 대금으로 무기를 구매하여 전쟁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분쟁지역 원자재 사용량이라는 데이터만을 관리한다면 분쟁지역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다시 파악해야하고 만약에 전 세계 다양한 협력사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기업이라면 많은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재사용량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자원의 형태, 원천, 광물 종류, 공급처, 제련소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된다면, 어떤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그림 2. ESG 데이터 흐름도 예시 - 원자재사용량



〈에스코어〉



어떤 협력사를 통해서 어떤 광물이 공급되어서 분쟁지역 원자재 사용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 기업의 적극성이 ESG 달성의 성패를 좌우

정부 방침대로 '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 보고서에 공개된 데이터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허위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단, 정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ESG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ESG, 즉 IT를 활용한 ESG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 ESG는 기업이 필요한 ESG 데이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데이터 흐름도로 정의해보았다면 각각의 데이터가 현재 기업이 보유한 어떠한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ESG 데이터의 디지털화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

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보면 생각했던 것 보다 ESG 데이터의 디지털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첫째,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둘째, ESG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 저장, 관리되고 있는가?, 셋째, ESG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상 3가지 질문에 기업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반 ESG를 위한 해답을 찾아가느냐가 2~3년 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ESG 추진과 성과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	저자소개	↗
서정열 에스코어㈜ 디지털전략컨설팅팀 상무는 삼성관계사와 제조, 유통/서비스, 공공 업종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디지털 전략 분야에서 16년간의 컨설팅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